

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백합 100만미 방류

지역민 소득증진·갯벌생태계 기초생산량 증진 위한 사업 임자면·자은면·증도면 등 백합 자생지 모래갯벌 중심 방류

신안군은 신안 갯벌의 기초생산량 증진을 위해 조개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백합을 방류했다고 밝혔다.

백합 방류 사업은 지역민들의 소득증진과 갯벌생태계의 기초생산량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신안 갯벌을 국내 최대의 습지보호지역이자 세계자연유산의 보호 관리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합과 같은 이매패류는 바닷물의 탄산칼슘을 흡수하고, 껍질을 키우아가는 성장을 하며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백합 방류는 이동성이 적은 종패를 방류함으로써 장기간 성장에 따른 갯벌생태계 회복이 기대된다.

신안군은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임자면, 자은면, 증도면, 비금면 등 과거 백합의 자생지였던 모래갯벌을 중심으로 방류를 추진했다. 총 100만 마리, 4톤에 달하는 종패를 방류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 갯벌은 전 세계의 모든 형태의 갯벌이 관찰되는 지역이다."라며 "생합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생명력을 가진 백합처럼 우수한 갯벌



생태계를 가진 신안 갯벌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위해 지난 6월에는 최상위 포식자 낙지를 총 9천 마리를 방류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신안 갯벌

목포시, 사기전화(보이스 피싱) 예방홍보 주력 산타벨리지 행사장 대면홍보 활동

목포시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 월도실에서 열린 '산타벨리지 행사'에서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사기전화 예방 홍보에 적극 나섰다.

최근 기관사칭, 대면편취, 대출사기 등 사기 전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이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시가 특단의 홍보 대책을 수립 시행한 것이다.

시는 이날 사기 전화 예방 5계명과 유형별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고전화는 범죄신고(112), 금융감독원(1332), 민원상담(182)로 신고할 것을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위해 금융기관, 경로당 등 다중집합 장소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각종 행사시에도 대면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 떡 가공업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업체 간 경쟁 완화 방안 모색

영광군은 지난 22~23일 이틀간 진도 솔비치 리조트에서 (사)영광에서 모시잎떡을 만드는 사람들 회원 업체(대표 대군년)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리적표시제 품질관리 교육 및 영광 모시잎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영광 떡 가공업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지리적표시제의 개념과 이해를 통한 품질 향상과 사후관리 방안 교육, 업체 간 경쟁 완화 프로그램, 퍼스널 컬러 진단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졌

으며, 지리적표시제(진도홍주)를 생산하고 있는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지리적 표시제 현황과 발전 방안을 공유받은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회원간 개별 토론을 추진하여 영광모시잎떡 품질관리, 경쟁 완화, 세대별 애로사항 공유 등 4개 주제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회원 간 관계를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민원행정분야 협업 우수기관상

28일 함평군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23년 민원행정분야 협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민원행정분야 협업' 평가는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 대응 우수 협업사례를 발굴해 포상할으

로써 적극행정을 독려하고자 실시됐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현장에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이러한 노력은 협업성과, 홍보성과, 적극성 등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함평=김광춘 기자

무안서 동아시아 고구마 국제연수회 개최

무안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단장 김명진)과 동아시아 고구마 친선협회(협회장 고하라 시게키, 한국회장 이정옥)는 공동으로 지난 11월 13일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고구마 국제연수회를 개최했다.



학 교수 겸 야마다에이지 가와고에 고구마 문화자료관 관장의 '일본 관동지방의 고구마 현황'으로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대공연장 로비에서는 실제 주제별·사례별 발표와 동시에 고구마 품종 전시와 무안을 비롯한 전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

이번 행사는 동아시아(한·중·일) 친선협회 회원은 물론 전국단위 고구마 생산·가공·유통 관계자 등 250명이 참석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전 일정은 주요 내빈의 인사말씀을 시

한·중·일 고구마 생산·가공·유통 관계자 한자리 모여 주제별·사례별 발표와 질의응답, 상호교류 활동 진행

작으로 정미남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고구마연구실장의 '기후변화에 따른 고구마 재배여건 변화와 대응방안', 요시도메료이치 고구마월드센터 전무이사의 '일본 지역 고구마에 의한 지역산업 구축', 왕리구오 천진풍화유용농업발전유한공사 회장의 '중국의 병품 고구마 수의 창출 산업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고구마 관련 가공제품의 전시와 시식 체험이 이뤄져 가공산업의 현주소를 알 기회를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외부에 무안군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고구마와 관련 가공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일환으로 올해 12월 건립 예정인 전략품목융복합산업센터에서 생산될 군고구마페스트(IQF시설 포함)에 대한 수요처 확보 차원에서 동아시아 3국을 비롯한 전국단위 고구마 생산·유통·가공 관계자들의 방문은 갖는 의미가 매우 컸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출범

영암군은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이 27일 영암군실내체육관에서 학생·학부모, 교직원, 마을교육공동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이 목표인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은 (재)영암군민장학회를 계승·발전시킨 민·관·학 협력 모델의 독립법인이다.

미래교육재단은 지역 교육기관을 연결해 영암군 교육정책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사업 발굴 등으로 학생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재단은 지난 9일 영암교육지원청 인가와 법인 등기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성과 나눔'을 주제로 영암교육 한마당도 열려 출범하는 교육재단 앞길을 뜻깊게 했다.

우승희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를 찾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재단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재단 전신인 (재)영암군민장학회는 2008년에 설립된 이후 영암군 학생 9000여 명에게 80억 4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